



2021년 1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월 12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. 11.(월)	담당부서	신북방통상총괄과
담당과장	전응길 과장(044-203-5680)	담당자	정홍곤 서기관(044-203-5684)

## 민관합동 “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” 확대·개편

- 격리면제신청서 접수 일원화, 진행사항 실시간 확인 서비스 등 지원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·국경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개소한 「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」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)를 당초 '20년에서 '21년까지 연장, 운영하고,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
  - 작년 12.14일부터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신청서 접수가 기존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을 증원\*하는 등 준비를 완료하였고,
    - \* 증원 규모(10명) : 산업부(1명), 중진공·중기중앙회·창업진흥원(3명), 신규채용(6명)
  - 앞으로 기업인이 격리면제신청서 처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(www.btsc.or.kr) 개편을 준비하는 등 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
- 작년 종합지원센터는 '20.8.14일부터 '20.12.31일까지 격리면제신청서 접수, 건강상태확인서 처리·통보, 전세기 지원 등 총 19,356건을 안내·처리
  -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신청은 '20.12.14일부터 '20.12.31일까지 일 평균 126건, 총 1,634건 접수·처리
-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1.12일(화) 새롭게 문을 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,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철저한 방역하에 기업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함

